



특허청 '특허소송지원단' 2월 1일부터 운영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실시

앞으로는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보완되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및 기술전문성을 두루 갖춘 특허청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소송당

사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지던 기술 감정을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실시하여 공식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 연중 수시로 개선

기술력에 따라 건당 400만 원 ~ 1,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지원건수는 5건 이내로 제한

트허청은 국제출원 촉진을 위한 '08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을 출원 1건당 기술력에 따라 4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지난 1982년부터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자가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경우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81년부터 '07년까지 7,653건의 우수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총 129.24억 원을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비용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특허기술을 해외에 권리화하려는 개인과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는 주요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청현황을 보면, '05년 743건, '06년 1,170건, '07년 2,148건으로 신청수요가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허청, 해외특허기술도 공개한다

2008년 상반기 수요기술조사 실시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기술을 찾아 중매시켜주고 사업화까지 도와주는 '수요기술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창업예정자·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 구매 및 라이선싱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무료로 알선·중개 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올해는 수요기술과 공급기술 간 정확한 매칭을 위해 수요기술 신청접수 후 기술이전 전문가가 기술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인터뷰」를 실시한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급기술을 발굴할 예정으로 수요자는 찾고자 하는 기술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IPTV 셋톱박스 시장 경쟁 치열

특허 출원 급증

지난해 12월 28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통과 됨으로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IPTV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IPTV 셋톱박스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업계는 KT가 100만 가입자, 하나로텔레콤이 150만 가입자, LG데이콤이 20만 가입자를 각각 목표로 내세우면서 올해 IPTV 셋톱박스 시장은 200만 대에 3000억 원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들 통신업계의 빅3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셀러이 공동으로 뛰어들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3사는 지난 1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국내외 IPTV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IPTV 셋톱박스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8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37건, 2007년에는 77건, 2008년 1월 현재 7건으로 2005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단순히 방송을 TV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서비스, 메뉴선택, 타 기기와의 결합, 광고,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제공 특허청